

헷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이정숙 총장

신학대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 ‘이론과 실천을 융합하는 커리큘럼 운영’

올해로 개교한 지 20년이 되는 헷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헷볼트리니티)는 다양한 학위/비학위 과정과 역동적인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기독교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전문대학원대학교이다. 제5대 총장에 취임한 이정숙 총장은 시대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며 학생들 및 교직원과 소통하며 3년째 학교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이 총장은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학처장과 학사부총장 시절부터 역점을 두었던 대로 이론과 실천을 융합하는 커리큘럼 개정을 추진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오늘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선교를 중심으로 꾸준히 정진해온 학교. 이정숙 총장이 만들어나가는 헷볼트리니티만의 문화가 궁금해진다.

Editor 이준영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소명으로 하는 이정숙 총장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간다. 이중언어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각종 회의와 행사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이루어진다. 각국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곳이기 때문에 배려와 소통의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의 독특성과 전문성으로 헷볼트리니티의 프로그램은 이렇다 할 홍보를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찾아온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총장은 알기에, 꾸준히 공통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학교의 가치는 곧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가치 전달하는 교육으로 올해 개교 20주년 맞아

2015년 9월 1일, 헷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학교의 정체성이라고 말한다.

“올해가 20주년이에요. 이를 계기로 우리 학교는 왜 생겼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총장은 이전 총장들과는 달리 헷볼트리니티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강의실에서 직접 학생들과 부딪치며 그들이 원하는 교육이나 시설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한 교학처장으로 역임하며 행정적인 어려움과 필요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커리큘럼개정, 장학금 문제, 시설의 편의성, 그리고 온라인 부분에서도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드러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이 총장은 초점을 맞췄다. 효율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조사도 하고 신경도 많이 썼다. 그래서인지 헷볼트리니티의 커리큘럼은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언어과정과 학위과정에 적절한 커리큘럼의 운영은 이 대학의 장점이자 매력이다.

“신학교육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현실적 상황과 필요에 맞게 커리큘럼을 조정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교육 가치를 만들고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나가서 더 나은 목회자나 사역자(기관사역자, 상담사, 교사 등), 선교사 또는 신학교육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가정법원에서 표창장 받은 헷볼트리니티 상담센터

헷볼트리니티에는 신학전공 외에도 특화된 전공이 두 가지가 있다. 기독교상담학 전공과 교육학 전공이 그것이다. 기독교상담학은 석사과정(영어 및 한국어)과 박사과정(한국어)이 있다. 기독교상담학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헷볼트리니티 상담센터는 가정법원이 공식으로 지정한 상담센터이다. 위기의 부부나 가정, 자녀 문제 등의 상담 효과가 좋았던 센터로 인정받아 가정법원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가정법원 판사가 직접 와서 ‘부모-아동상호작용치료(PCIT)’ 프로그램을 지켜 보기도 했었다. 이 외에도 여러 학교, 기관 및 교도소와도 협력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이주민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갈



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어로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피상담자의 자국어 통역을 통해 진행하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햇볼 트리니티에는 20여 개국에서 온 외국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처럼 이 총장은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석사과정은 영어로만 진행된다. 이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기독교학교국제연맹(ACSI)의 교사자격증을 받으며, 전 세계 기독교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다.

비학위프로그램으로 2005년에 제3대 총장이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시작한 크리스천리더십스쿨 또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CEO 혹은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네트워크가 탄탄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프로그램 출신들이 학교의 졸업생 숫자와 비슷할 정도로 사람이 풀리는 것은 양질의 프로그램 구성 덕분일 것이다.

이에 더불어 이 총장은 얼마 전 ‘여성사역리더십프로그램’도 개설했다. 여성사역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결단이었다.

“여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도 그렇지만 졸업하고 나면 교회나 사

회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여성들에게는 새롭고 어려운 길이 많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서로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서 여성사역리더십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여성들에게 일차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남성분들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기꺼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웃음) 남녀가 함께 잘 사역해야 아니까요.”

이 총장은 꾸준히 좋은 학교란 무엇인지, 좋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교 공동체가 함께 지향하는 진정한 가치였다.

다문화가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공동체

“저는 장학금을 좀 더 만들었으면 합니다. 특히 영어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선교지에서 석사학위만으로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가 요구하는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이 필요한 거죠.”



이 총장은 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세워주기 위해 끊임없이 도와준다. 학교를 졸업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햇볼트리니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영어와 한국어 프로그램

이 아주 균형있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잘 가르치는 것으로 명성을 크게 얻고 있다. 이것은 원래 햇볼트리니티가 1998년 개교 시 전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국내 유일한 신학대학원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한국어과정들이 개설된 후에도 영어과정은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대형교회 및 독립 영어예배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햇볼트리니티의 졸업생들이다.

햇볼트리니티는 학교의 교수회의와 채플, 그리고 다수의 행사들을 영어로 진행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의 함께 어울리는 국제적인 공동체가 된 것이다. 이 총장은 이러한 문화를 학교의 큰 자랑으로 꼽는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 학교 자체의 문화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총장은 학생들에게 ‘취직하려고 하지 말고 개척하라’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에 맞춘 과목도 제공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당연히 기존교회에서도 섬겨야 하지만 필요한 사역을 개척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잘 살리고 자급도 가능한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가 일종의 창업 세미나, 교회 개척 세미나 같은 과목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다양한 멘토를 만나 적극적으로 배우는 ‘열정’ 필요

우리는 가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역할을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가치가 희미해지는 것을 방관하기도 한다. 그럴 때 행동과 결정에 많은 혼란이 찾아온다. 이 총장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에 대한 상기’라고 말한다.

“우리 학교는 신학대학원이니까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이 다 동의하는 하나의 가치요. ‘우리는 이것 위해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자꾸만 일깨우면 그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요. 직원들도 그렇고 교수, 학생들도 이곳이 그저 직장, 학교라 생각하게 되면

함께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지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소명’이죠. 저는 그걸 상기시켜주는 게 제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요.”

공통의 가치, 공통의 신앙을 계속 교류하고 그에 맞는 사람이 되려

고 하는 곳. 햇볼트리니티의 구성원들은 함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도운동을 한다. 흩어져서나 모일 때, 모든 회의를 할 때 공동의 제목으로 기도를 같이함으로써 공동체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 총장은 대학시절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학부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신학으로 전공을 바꾼 이유이다.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를 발견한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라는 삶의 목표가 생기니 그의 삶도 탄탄한 여정에 접어들었다.

궁극적인 가치 하나로 앞길을 바라보고 걸어왔을 이 총장에게도 위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에 대해 이 총장은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열정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요. 저는 항상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멘토를 만나 적극적으로 배우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한 게 박사과정 때 지도교수님들이 너무 훌륭하셨어요.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그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총장의 삶을 통틀어 가장 마지막에 남는 단어는 '열정'이었다. 스스로 일으키는 힘의 원동력. 바로 배우려는 열정에서 나온 것이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어느새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총장이 일궈놓은 성과는 모두 그의 습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배우고 듣고 닦기 위한 노력은 지금의 모습을 더욱 밝혀준다. 오늘도 이정숙 총장은 타인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또 듣고 배울 것이다. *g*



Profile

학력 사항

△이화여자대학교 문학사(사회학)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프린스턴신학대학원 철학박사(교회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후과정(기독교미술사) △2002년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회사 교수 부임 △2005년~2011년 교학처장 △2012년 학사부총장 △2015년 5대 총장 취임

경력 사항

△한국교회사학회 학회장 역임 △대학총장조찬기도회 회장 역임 △전국신학대학교협의회·대학원대학교협의회 수석부회장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부회장 △아시아신학연맹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이사 △세계칼빈학회 (ICCR) 중앙위원